

스포츠의 감동·평화의 울림...음악으로 쏘아 올리다

내달 12일 광주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기념 광주시향 연주회

‘The Echo of Peace’ 주제...바이올리니스트 윤소영 협연

스포츠와 예술이 어우러진 평화의 울림이 클래식 선율로 시민 곁을 찾아가는다.

광주시립교향악단(광주시향)은 오는 9월12일 오후 7시30분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388회 정기연주회 ‘The Echo of Peace’를 개최한다.

이번 연주회는 ‘광주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를 기념하는 공연이자 광주예술의전당 공연 예술축제 ‘GAC 그라제’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스포츠와 예술이 어우러진 도시의 품격을 세계에 알리는 무대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The Echo of Peace(평화의 울림)’는 양궁대회의 공식 슬로건이다.

날아간 화살이 메아리로 되돌아오듯, 이번 무대가 청중의 마음에 평화의 메시지를 쏘아 올리고 다시 깊은 감동으로 돌아오는 예술적 순환이 되길 바라는 의미를 담았다.

정확한 집중과 고요한 긴장 속에서 이뤄지는 양궁처럼, 이번 연주회는 음악의 언어로 ‘평화의 울림’을 묘사한다.



지휘자 이병욱

바이올리니스트 윤소영

먼저 1부에서는 브루흐의 ‘스코틀랜드 환상곡 op.46’이 연주된다.

브루흐는 독일과 영국에서 지휘자로 활동했고 베를린 음대 교수로 오랫동안 재직했다. 당시에는 ‘합창음악의 대가’로 주목받았으며, 오늘날에는 바이올린 작품에서 빛나는 감성과 세련



광주시립교향악단 공연 모습

된 선율로 기억된다.

이날 연주될 작품은 스코틀랜드 민요 선율에 기초한 자유로운 형식의 바이올린 협주곡이다.

이날 협연에 함께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윤소영은 예후디 메뉴인 콩쿠르, 헨리크 비예니아프스키 콩쿠르(한국인 최초 우승), 미국 인디애나 폴리스 국제 콩쿠르 등 세계 주요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입상하며 주목받았다.

현재 국제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도이치 캄머필하모니 브레멘, NDR 엘프필하모니 오케

스트라,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과 협연했고, 크시슈토프 펜데레츠키, 아이버 볼튼, 크시슈토프 우르반스키, 무하이 탕, 막심 벤게로프 등 세계적인 지휘자들과 호흡을 맞췄다.

2부에서는 ‘시벨리우스 교향곡 1번’이 이어진다. 핀란드의 국민 작곡가 시벨리우스는 북유럽 특유의 서정성과 장대한 자연의 이미지를 음악으로 형상화한 거장이다.

1899년에 작곡된 교향곡 1번은 초기 대표작으로, 고전적 형식미와 낭만적 감성이 절묘하게 융

합돼 있다. 특히 러시아 제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을 꿈꾸던 격동의 시기에 발표돼 핀란드인의 정체성과 저항의 상징으로 평가받는다.

광주시향 관계자는 “이번 무대가 예술로 전하는 평화의 메아리로 세계인의 가슴에 깊은 인상을 남길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예매는 광주예술의전당 홈페이지와 티켓링크에서 가능하다.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 원이며 초등학생 이상 입장할 수 있다.

/최명진기자

오늘의 기억으로 새겨진 ‘예레미아의 노래’

허달용 ‘예레미아의 슬픈 노래’展...내달 3일까지 브리티컬러리

‘잊혀진 존재를 위한 애도와 기억의 회화.’

허달용 작가 개인전 ‘예레미아의 슬픈 노래’가 오는 9월3일까지 브리티컬러리(서구 대남대로 440)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한국 사회의 어두운 단면과 구조적 침묵을 회화적으로 드러내며, ‘삭제’와 ‘침묵’을 중심 키워드로 삼고 있다. 신작을 포함한 회화 작품 43점이 소개된다.

작가는 손끝으로 직접 지우고 덧입히는 추상적 화면을 통해 잊혀진 존재들과 목소리를 잃은 이들에 대한 애도를 담아낸다.

전시 제목은 구약성서 속 예언자 예레미아(Jeremiah)에서 비롯됐다.

멸망 직전의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비탄의 노래를 불렀던 예레미아의 모습에 작가는 오늘날의 한국 사회를 겹쳐 본다. 그 속에서 고통과 무너짐, 침묵의 무게를 화면 위에 투영한다.

작품은 대부분 흑백의 강렬한 대비를 중심으로

로 구성됐다.

일부는 원색과 흐름, 붓이 아닌 손가락으로 그려진 표현이 특징이다.

이는 회화를 단순한 시각적 재현이 아닌 ‘몸으로 말하는 기록’으로 인식하는 작가의 관점을 반영한다. 환색은 공백이 아니라 말소된 진실이며, 손가락은 그것을 지우고 드러내는 양날의 도구로 기능한다.

이번 전시는 단지 회화의 물성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보지 못했는가’에 대한 시각적 질문을 던진다.

작가는 ‘내 눈은 눈물샘 같아서 끊임없이 흘러내리고 멈추지 않는다’(예레미아가 349)는 구절을 언급한다.

그러면서 “역사 속에서도 고통은 매번 새롭게 다가오며 무너진 신뢰와 침묵하는 공동체, 분열된 사회 안에서 예술가로서의 책무를 고찰하게 된다”고 밝혔다.



‘예레미아의 슬픈 노래’

전시 관람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토·일요일은 휴관이다.

/최명진기자

ACC, ‘개관 10주년’ 문화상품 출시

공예 작가 협업 ‘백자 찻잔 티 세트’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ACC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전당의 상징성을 담은 문화상품을 출시했다. (사진)

이번 상품은 전당의 주요 색상과 건축 요소, 도형, 표어 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디자인 스튜디오 ‘모스’(mohs)와의 협업으로 진행한 이번 디자인은 전당 대표 색상인 푸른색과 먹색을 기본으로 했다.

건축물을 상징한 도형과 ‘체계를 향한 아시아 문화의 창’이라는 문구를 토대로 10주년을 맞이한 전당의 의미와 철학 또한 담았다.

상품은 천 가방과 텀블러, 컵 받침 등 생활 속에서 활용도가 높은 품목으로 구성해 일상에서 전당의 철학과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텀블러 제작에는 일본을 기반으로 아시아 시장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기업 ‘모슈(mosh)’가 참여해 눈길을 끈다. 전



당 상징 디자인을 적용한 한정판 텀블러 상품은 전당 문화상품점 ‘들락(DLAC)’ 매장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 4월 ‘카페, 진정성’과 함께 출시한 ‘시간을 담은 아시아의 향’ 차 세트는 공예 작가와의 협업을 통해 고급형인 ‘백자 찻잔 티 세트’로 새롭게 선보인다.

우리나라 백자의 미감을 엿볼 수 있는 김진완 도예가의 백자 찻잔 세트를 함께 구성해 아시아 차 세트의 소장 가치를 한층 더 높였다.

/최명진기자

자연도, 부모님도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자연 / 사용기한 없음 / 365일 관리 / 광주에서 20분 / 무료 안치

광주수목장 문의 062.449.4446